

EYA 중국 도서 소개

안녕하세요?

EYA 에서 보내드리는 2015 년 11 월 셋째 주 중국어권 뉴스레터 입니다.

뉴스레터를 통해 소개된 도서의 검토서 신청 및 문의는 이메일 newsletter@eyagency.com 을 통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 每一堂课 北大系列

가제 : 북경대학교 명강 시리즈

<북경대학교 명강 시리즈>는 북경대학교에서 실제로 진행되는 수업의 내용을 담아 독자들이 편안하게 지식을 습득할 수 있게 만들어진 시리즈로, 심리학과 경영학, 자산관리와 감성지능 강의 총 4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목 : 每一堂课 北大心理课

가제 : 북경대학교 명강: 1일 1강 심리학편

저자 : 덩지에(邓捷)

분량 : 305 페이지

발행일 : 2013년 4월

장르 : 심리학



북경대학교의 실제 심리학 수업 내용을 담은 책으로,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마음을 강인하게 단련시키고 자신의 삶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어떤 생각을 가지냐에 따라 인생의 방향과 내용이 바뀌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감정을 잘 통제하고, 자신이 누군지 아는 것도 생활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 책은 이와 같이 심리학과 관련된 인생의 지혜를 잘 서술한 책이다. 이 밖에도 수중의 모든 패를 잘 사용하는 방법이나 믿음을 가지는 법, 다른 사람의 심리를 읽거나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법 등 심리학 수업 내용을 통해 독자들로 하여금 인생의 기쁨과 행복을 얻을 수 있게 한다.

<목차>

제1장 어떤 생각을 가지냐에 따라 인생이 바뀐다

제2장 감정의 주인 되기

제3장 자기 자신을 아는 법을 배우기

제4장 수종의 모든 패를 잘 사용하도록 시도하기

제5장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기

제6장 다른 사람의 심리를 읽음으로써 자신을 사랑 받는 사람으로 만들기

제7장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되고 싶은 자신이 되기

제8장 자신의 잠재능력을 찾아내기

제9장 마음이 평온하고 사랑이 있는 사람 되기

제10장 생활의 지혜를 가진 사람 되기

제목 : 每一堂课 北大管理课

가제 : 북경대학교 명강: 1일 1강 경영학편

저자 : 원지에 (文捷)

분량 : 337 페이지

발행일 : 2013년 1월 1일

장르 : 경영학



<북경대학교 명강: 1일 1강 경영학편>은 북경대학교 광화관리학원의 경영학을 전체적으로 담아내어 경영 과정에서 만날 수 있는 각종 문제들을 수록하였다.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경영 문제들과 매일 배우는 경영 이론을 종합하여, 경영인들이 일반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들을 통해 독자들이 책을 읽는 동안 사회의 경영 지식이나 기술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자신의 경영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게 돕는 책이다.

<목차>

제1장 목표경영

제2장 지도기술

제3장 혁신경영

제4장 인재경영

제5장 권한을 부여하는 경영

제6장 기업경영

제7장 집행력 관리

제8장 기업문화

제9장 위기관리
제10장 시간관리
제11장 자기관리
제12장 경쟁관리
제13장 스트레스관리
제14장 경영원칙

제목 : 每一堂课 北大财富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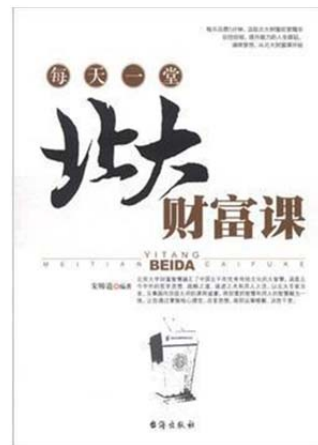
가제 : 북경대학교 명강: 1일 1강 자산관리편

저자 : 송슈아이따오 (宋帅道)

분량 : 293 페이지

발행일 : 2013년 10월 1일

장르 : 성공법칙



<북경대학교 명강: 1일 1강 자산관리편>은 북경대학교 자산관리 강의 과정을 중심으로 북경대학교 전문가의 이론을 참고로 하여 부를 쌓는 지식과 관리방법을 확장한 책이다. 이 책에서는 부의 창조와 경영을 합하여, 부를 창조하는 지식을 통해 부를 얻는 왕도와 상도를 탐구해보고, 각각의 구체적인 상황의 예시를 통해 주변의 작은 일부터 실천할 수 있게 하고 재정관리의 지혜와 자산 경영 기술을 개발시켜 진정한 부를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목차>

제1장 생각이 부를 결정한다
제2장 지혜로운 자가 이치를 안다
제3장 학식이 부를 만든다
제4장 기회를 잘 이용하여 부를 얻는다
제5장 수입을 늘리고 소비를 줄인다
제6장 상태의 발전 방향을 거슬러 부를 만든다
제7장 저축하여 부를 모은다
제8장 채권펀드
제9장 지혜롭게 보험에 가입한다
제10장 소장해서 부를 축적한다

제목 : 匆匆那年 (上下)

가제 : 바빴던 그해(상하권)—황금기념판

저자 : 지우이에후이(九夜茴)

분량 : 516 페이지

발행일 : 2015.08.01 (개정판)

장르 : 소설



8년간 각종 베스트셀러 자리를 놓치지 않았으며 중국에서 누적 2백만 발행부수 기록
책뿐만 아니라 드라마로, 영화로, 그리고 노래로 대히트를 친 소설

80년대생 짱난은 대학 졸업 후 취업을 하지 못해 호주로 유학을 떠났고, 그곳에서 자신처럼 유학을 온 팡후이를 만나게 된다. 팡후이의 신비로움에 매료되고 있을 때 그는 뜻밖에도 그녀가 동성애자라는 소문을 듣게 된다. 그는 어쩌다보니 팡후이와 같은 집에서 살게 되고, 다른 친구들을 통해 팡후이는 동성애자가 아니라 잊지 못할 아픈 상처가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어느 날, 팡후이는 짱난에게 자신의 지난 이야기를 들려준다.

팡후이와 천쑤은 고등학교에서 알게 된 사이로, 천쑤은 성적도 집안 환경도 좋고 잘생기고 인간관계도 좋은 전형적인 인기 많은 스타일의 남학생이었다. 팡후이는 조용하고 다른 사람과 말을 잘 섞지 않는 여학생이었지만 이런 점이 오히려 천쑤으로 하여금 그녀를 주목하게 했다. 천쑤의 구애로 팡후이의 마음이 움직였고 결국 천쑤을 좋아하게 된다. 그들은 자신들의 감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지는 못하고 친한 친구들인 치아오란, 린찌아모, 짜오예와 함께 아름다운 시간을 보낸다.

대학에 들어간 후 두 사람의 성격 차이로 인한 갈등은 점점 심해졌다. 천쑤이 다소 지쳤다고 느낄 때 다른 여학생이 나타났다. 그녀는 팡후이와 정반대의 성격으로, 밝고 활발하며 아름답고 사람을 끌어들이는 매력으로 적극적으로 천쑤에게 구애한다. 이 때문에 천쑤은 점점 그 아름답고 대담한 여학생에게 끌리게 되고 결국 두 사람은 이별하기에 이른다. 팡후이와 천쑤이 이별하게 된 후 천쑤은 치아오란이 그 동안 팡후이를 좋아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린찌아모를 좋아하는 짜오예는 천쑤을 향한 린찌아모의 감정을 알게 된다. 이렇게 다섯 사람 사이의 우정은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와 함께 산산조각 나게 된다. 팡후이는 이런 이별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고,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 그녀는 체념한 채 어떤 남자와 잠자리를 갖고 임신하게 된다. 천쑤은 팡후이

의 이런 모습을 보고 이것이 자신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팡후이는 이미 더 이상 학교에 머무를 수 없었기에 호주로 떠나오게 된다.

이 소설은 팡후이와 천쑤의 어린 시절 사랑 이야기를 유쾌한 표현을 통해 풀어내고 80년대 이후 출생한 아이들의 감정과 생활을 묘사해낸다. 아름다운 청춘 캠퍼스 생활과 청소년 범죄에 대한 경고를 다루면서 건국 50년의 경사, 새로운 세기의 맛이, 북경 올림픽 개최 신청 성공 등 역사적인 사건이나 대학 생활의 혼란, 결혼 생활의 현황 등등을 포함하여 독특한 시각으로 진솔하게 80년대 이후 아이들의 성장 궤적을 기록하고 시대 상황을 충실하게 반영한 소설이다.

<작가 소개>

지우이에후이(九夜茴)는 청춘 문학 대표 작가이자 극작가로 《私》소설 시리즈 잡지 편집을 주관했다. 대표작으로는 : 《匆匆那年》《花开半夏》《初恋爱》등이 있으며 지금까지 출판된 작품들은 모두 영상화 되었다. 영화, 드라마, 인터넷 드라마 모두 뜨거운 사랑을 받았으며 중국 대형 포털 소우후搜狐와 영사문화회사 小马奔腾는 함께 “九夜茴의 해”를 만들었다.

<목차>

1장 잊지 못하다

“사람에게는 언제나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일이 있을 수 있다”

2장 좋아해

“그 시절 우리는 사랑을 말하지 않았다. 사랑이란 어렵고도 심오한 말이기에 우리는 그저 좋아한다고 말했다”

3장 교제하다

“나는 만나는 것보다 그리워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만나면 현실과 마주치게 되고 아픔을 겪게 되지만 그리워하는 것은 이미 정해진 거짓말을 동화로 만드는 힘이 있으니까”

4장 걸어가다

“그날 내가 곧 꿈에서 우리가 아직도 고등학생이었다. 아마 황혼 무렵인지 하늘은 어두운 노란색이었고 다들 운동장에서 뛰고 있었다. 그 때 난 그저 이대로 달리고만 싶었다”

5장 성장하다

“우리는 모두 자란 후에는 영원히 함께할 수 있다고 믿었기에 어른이 되기만을 기다렸지만 정작 우리가 자라서 청춘과 작별했을 때에는 어른이란 모든 것과 이별하는 것뿐이란 것을 알게 되었다”

6 장 이별

“잘 가”

7장 우연히 만나다

“어른이 된 후 언제나 다른 것을 배우고 다른 길을 걷고 다른 사람을 만났기에 우리는 다른 길을 갈 수 밖에 없는 운명이었다”

8장 떨어지다

“어릴 적 언제나 서로에게 상처 입히는 것을 좋아했지만 결국 우리는 절망했다. 왜냐하면 서로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떨어지는 것뿐이었기 때문이다”

9장 바쁜 날

“나는 정말 사랑했었고 미워했었다. 하지만 사랑이며 미움이며 모두 바쁘게 흘러갔다. 지금 생각해보면 난 후회하지 않는다. 만약 다시 선택하라면 난 같은 선택을 할 것이다”

번외 상, 하

제목 : 花开半夏

가제 : 반하가 만개할 때 (만개한 반하)

저자 : 지우이에후이(九夜茴)

분량 : 266 페이지

발행일 : 2014.12.12

장르 : 소설



2백만 인쇄 부수를 기록한 “바빴던 그 해”의 후속작이자 실제 사건을 각색한 내용

동명의 드라마가 제작되어 드라마와 책 모두 뜨거운 인기를 끌었던 소설

어릴 적 인신매매범으로부터 도망쳤던 웨이루핑은 떠돌이 생활을 해왔고, 사건을 지휘하던 이예시양룡이라는 형사는 그를 보살펴줄 집을 찾아준다고 했지만 며칠을 기다려도 그는 오지 않았다. 이예시양룡은 사건을 바빠 해결한 후 다시 찾으러 갔지만 이미 웨이루핑은 찾아볼 수 없었고 이는 점차 기억 속으로 사라졌다. 웨이루핑은 결국 시아 할머니가 데려가 키우게 되었고, 그는 시아 할머니가 데리고 있던 12살의 시아루화를 만나 세 명이 함께 의지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결국 할머니는 세상을 떠나고, 웨이루핑은 시아루화를 학교에 보내기 위해 부두에 나가 일을 하기 시작한다.

시아루화가 17살이던 무렵, 어린 시절 그녀를 좋아했던 친구 아푸에 의해 강간 당하고 이 사건은 시아루화에게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공포를 남기게 된다. 웨이루핑은 아푸를 거의 죽일 뻔하다가 하이핑 시의 풍운아인 청하오와 마주치게 된다. 청하오에게 보답하기 위해 웨이루핑은 그를 따라 동고어 나이트클럽에서 일을 하기 시작한다. 한편 형사 이예시양룡은 마약 판매 사건의 모든 증거가 알맞게 맞춰졌지만 이것이 청하오가 놓은 덫에 걸린 것이 아닌가 의심하게

된다.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 청하오의 범죄 증거를 찾기 위해 이에시앙롱은 동고어에 스파이를 잠입시킨다.

청하오는 위에루핑이 동고어에서 일을 시작한 후 그에게 엄청난 보수를 주었고, 이 때문에 시아루화는 위에루핑이 하는 일을 의심하게 된다. 결국 시아루화는 동고어에 가보고 이 곳이 일하기 적합한 곳이 아니라고 판단해 위에루핑이 청하오와 일하지 말았으면 한다고 말한다. 위에루핑도 루화에게 일을 그만둘 것이라고 대답하고 싶지만, 청하오가 루화의 안위를 두고 협박을 해오자 어쩔 수 없이 일을 계속하게 된다.

위에루핑은 시아루화에게 숨겨왔던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지만 시아루화는 루핑을 좋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백을 받아들일 엄두를 내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루핑을 좋아하는 쑤통은 루화와는 다르게 루화와 루핑의 관계를 눈치채지만 곳곳이 자신의 방식으로 루핑을 좋아한다. 쑤통이 루핑에게 고백을 하는 것을 듣고 시아루화는 비로소 루핑에 대한 자신의 감정이 얼마나 깊은지 알게 된다. 그녀는 루핑과 함께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떠나 살고 싶지만, 루핑은 범죄로 인해 감옥에서 십 년 넘게 있어야 한다고 한다. 그래도 그녀는 이 역시도 기꺼이 기다린다고 한다. 이 때문에 그녀는 이에시앙롱에게 연락하게 된다.

한편 청하오는 몇 차례에 걸친 밀수 실패로 스파이가 있는지에 대해 의심하게 된다. 그리고 루핑의 주머니 속에서 이에시앙롱의 전화기가 떨어지자 청하오는 루핑을 의심하게 된다. 자신의 물건을 팔아 넘기기 위해, 그리고 루핑이 스파이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그는 루핑에게 물건을 가져오라며 루화를 가지고 협박한다. 진짜 스파이는 루핑의 행동을 저지했고, 루핑을 짝사랑해오던 청시우시우는 이를 보고 오해하여 절망한 채 루핑에게 총을 쏘 대폭발이 일어난다. 폭발 속에 수많은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고 청시우시우와 웨이루핑까지 죽게 된다.

청하오는 시아루화를 납치해 때를 기다리다 외국으로 도망가려 한다. 이들이 여전히 외국으로 도망갈 기회를 노리고 있던 4년 후, 청하오는 TV에서 진짜 스파이를 보게 되고 복수를 위해 하이핑으로 돌아온다. 이와 동시에 부하였던 아지우는 청하오를 결국 경찰에 신고하고, 이에시앙롱은 이번엔야말로 청하오를 잡고 시아루화를 구해내려 한다. 하지만 청하오는 먼저 총을 쏘 루화를 죽였고, 청하오 자신도 총에 맞아 죽음을 맞이한다. 실제 사건을 각색한 내용인 이 소설은, 한 순간의 엇나간 인연으로 인해 이어지는 비극적인 사건들을 통해 작가는 한 남녀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과 긴장감 넘치는 전개를 엮은 소설이다.

<작가 소개>

지우이에후이(九夜茴)는 청춘 문학 대표 작가이자 극작가로 《私》소설 시리즈 잡지 편집을 주관했다. 대표작으로는 : 《匆匆那年》《花开半夏》《初恋爱》등이 있으며 지금까지 출판된

작품들은 모두 영상화 되었다. 영화, 드라마, 인터넷 드라마 모두 뜨거운 사랑을 받았으며 중국 대형 포털 소우후搜狐와 영사문화회사 小马奔腾는 함께 “九夜茴의 해”를 만들었다.

<목차>

12살. 우연히 만나다

17살. 뇌우

20살. 어렴풋한 어린 시절

20살. 그와 그녀

21살. 함께

22살. 붉은 얼굴과 작별

26살. 반하가 만개할 때